광주시 '대자보 도시' 정책 브랜드화 디자인 개발

브랜딩기획TF 3개월만에 결과물 도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3개 선 '시각화'

광주시가 '대자보 도시' 정책을 브랜드화 한다. '대자보 도시 광주'를 시각화해 홍보에 활용, 시민 공감대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2일 "기후위기 대응과 사람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인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디자인 시스템(사진)을 개발, 공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특정 정책의 목적과 비전, 내용을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브랜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자보 도시'는 승용차 위주의 교통 체계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도시 구조로 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광주시의 대표 정책이다.

'대자보 도시' 정책브랜드의 디자인은 '길'을 모티브로 대중교통·자전거·도보 등 3개 이동방식을 각기 다른 형태의 '선'으로 시각화했다.

'대중교통'은 도시 이동수단의 핵심 축으로서 묵직한 느낌의 '두꺼운 선'으로 안정감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전거'는 피부에 닿는 속도감과 좁은 골목도 누빌 수 있는 유연성이 느껴지도록 '얇은 선'으로 디자인됐다.

'보행'은 두 발로 걸을 때 느껴지는 땅과의 접촉감과 리듬감을 상상하며 '점선'으로 표현, 친근함과 생동감을 더했다.

3개의 선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돼 직선 또는 곡선의 형태의 길로 재구성된다. 이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두어블(Do-able) 모듈 시스템'으로 개발돼 시민과 사업 부서, 유관기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열린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두어블(Do-able) 모듈 시스템은 자유로운 조합이 가능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디자인 시스템이다.

정책브랜드 개발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디자인 전문기업 ㈜섞어짜기, 광주브랜드학교 수료생, 광주교통공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교통문화연구원,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유관기관, 대·자·보 도시 광주 시민실천단 등이 함께 참여해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운영해 정책브랜딩 기획 LAB을 가동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활용 매뉴얼을 구축해왔다. 지난달 26일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랜드 결과 공유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 만든 브랜드를 공식 공개했다.

광주시는 브랜드 활용 매뉴얼도 마련해 정책 확산과 교육, 실천사업 등에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박광석 대변인은 "이번 정책브랜드는 정책을 단순한 문구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이미지로 전달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시정 홍보물, 굿즈, 교통시설 안내판, 포럼 행사장 등에 적극 활용해 정책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흥겨운 자활한마당 2일 오전 광주 북구 연제동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자활한마당 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폭염 인명피해 선제 예방·현장 대응 강화"

김영록 지사, 대처상황 점검회의서 지시

폭염저감시설 추가 설치·예방 물품 배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실·국장,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폭염 대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와 현장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온열질환 감시 체계 운영 현황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 분야별 대책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지난 1일 도내 전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자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폭염 취약 3대 분야인 취약계층, 고령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재난도우미를 통해 매일 안부 확인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쿨링포그,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총 1천774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76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또한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무더위쉼터 냉방비 추가 지원, 예방물품 배부 등 사업을 선제 추진해 폭염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김영록 지사는 "올 여름은 마른장마와 함께 무덥고 긴 폭염이 예상된다"며 "폭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 관리에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고열 환자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냉방비 지원을 적극 안내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여름철 노지채소 관수시설 확대 방안을 비롯해 농작업 및 건설 현장과 수산분야 맞춤형 안내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 홍보 강화도 강조했다.

전남도는 폭염 대책 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마을방송 및 안내문자를 통해 외출 자제, 농작업 중지를 수시로 반복 홍보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건축상' 공모…25일까지 우수 건축물 모집

광주시는 2일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시상하는 '제29회 광주시 건축상' 공모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건축상'은 광주시가 주관하는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도시 미관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한 우수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공모 대상은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광주지역에서 사용 승인된 사회공공 부문, 주거부문, 비주거 부문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이다. 해당 작품은 건축사 자격 등록 후 설계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응모를 원하는 건축사는 광주시건축사회 누리집(gjkira.kira.or.kr)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 A0 크기 작품 패널과 함께 북구 무등로 255(4층) 건축사회 사무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작은 오는 10월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제2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 공개할 예정이다. /기수희 기자

전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 융자금 500억 지원

전남도는 2일 "생산비 증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사료구매 융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사료구매 융자금 1천25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나 법인이다.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 구제역·AI 예방적 살처분 피해 농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원액을 최대 9억원을 확대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9월18일까지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김성진 축산정책과장은 "사료 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저리 융자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오는 8일까지 추가로 수요 조사를 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 연도별 축산농가 사료구매 융자금 지원액은 2023년 1천371억원, 2024년 1천480억원이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사료구매자금 대출 완료 농가에 대출이자의 1%를 보조금으로 지원(2023년 24억원·2024년 14억원)했으며, 올해도 15억원을 확보해 지원하는 등 사료 값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